

경제통상 핫이슈

1조 달러 몸값 넘보는 AI기업 엔트로픽, 상장 준비 본격화

- AI 서비스 '클로드(Claude)'의 개발사인 엔트로픽이 6월 1일 美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IPO(기업공개) 신고서를 비공개 제출하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착수
 - 비공개 제출(confidential filing)은 미국 대형 기업들이 기업공개 전 SEC 심사를 먼저 받는 통상적인 절차로, 심사 완료 후 신고서가 제출되면 기업공개 일정이 확정됨
 - 현재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OpenAI(Chat GPT 개발사)보다 먼저 엔트로픽이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26년 하반기 자본 시장에서는 두 거물 AI기업 간의 본격적인 IPO 레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
- 엔트로픽은 지난 5월 28일 시리즈 H 투자 라운드에서 65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 기업 가치 9,6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OpenAI(8,520억 달러)의 가치를 처음으로 추월
 - 시리즈 H는 통상 비공개 상태인 스타트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대형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단계로, 엔트로픽의 경우 이 라운드 직후 IPO를 신청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 전 마지막 투자유치 행사가 되었음
 - 엔트로픽의 연간 반복매출(run-rate revenue)*은 올해 2월 시리즈G 당시 140억 달러에서 이번 발표 시점 기준 470억 달러로 단기간에 급증
 - * 최근 월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한 추정치로, 실제 연간 매출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번 라운드에서는 글로벌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의 3강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엔트로픽에 나란히 투자해 화제를 모았음
 - 엔트로픽은 공식 발표문을 통해 세 기업을 '전략적 인프라 파트너'로 명시하며, AI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SK하이닉스·마이크론은 이미 2026년 전체 HBM 생산 물량이 완판된 상태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선제적 포석으로 해석됨
- 엔트로픽 급성장의 핵심 동력은 2025년 5월 출시된 AI 코딩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Claude Code)'로 출시 6개월 만에 연간 반복매출 10억 달러, 2026년 2월에는 25억 달러를 돌파
 - 클로드 코드는 자연어 명령만으로 코드 작성·디버깅·배포까지 전 과정을 자율 처리하는 도구로, 코딩을 넘어 금융 분석·영업 운영·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KPMG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핵심 업무 워크플로우에 클로드 코드를 도입했으며, 기업 고객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

뉴스 큐레이션

경제·통상 뉴스

美 무역대표부, 한국에 12.5% 추가 관세 예고...강제노동 60개국에 포함

- 2일 그리어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46개국은 12.5%, 캐나다, 영국, EU 등 10개국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제안

※ 원문 링크 : [Reuters\(6/2\), US cites forced labor concerns as grounds for new tariffs](#)

美 4월 PCE 물가 전년 대비 3.8% 상승...2년 11개월만에 최고

- 지난달 28일 美 상무부는 4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23년 5월(4.0%)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 원문 링크 : [Reuters\(5/28\), US first-quarter GDP growth revised lower to 1.6% pace](#)

美 1분기 GDP 성장률 2.0→1.6% 하향...시장 전망치 하회

- 지난달 28일 美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GDP 잠정치(연율)는 1.6%로 속보치 2.0% 대비 0.4% 포인트 하향 조정되었으며, 민간 투자와 개인소비가 당초 집계된 것만큼 양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원문 링크 : [Reuters\(5/28\), US first-quarter GDP growth revised lower to 1.6% pace](#)

美, 中기업 해외 자회사의 AI 반도체 확보 차단

- 지난달 31일 美 상무부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세운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도 첨단 반도체 수출 허가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AI 반도체의 대중국 우회 수출경로 차단에 나섰다

※ 원문 링크 : [Reuters\(5/31\), US takes step to halt Nvidia AI chip shipments to Chinese firms outside China](#)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8일부터 15%로 인하

- 1일 美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포고령을 발표하여, 한국 등 미국과 관세합의를 맺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에 적용되는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

※ 원문 링크 : [Reuters\(6/1\), US, Mexico set three rounds of trade deal talks without Canada](#)

지역·산업 뉴스

삼성전자, 미국법인 본사 뉴저지에서 텍사스로 이전

-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리프스에 위치한 미국 본사를 텍사스주 플레이노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여 현지 모바일·네트워크 사업 및 오스틴·테일러 반도체 라인과의 시너지를 높일 예정

※ 원문 링크 : [연합뉴스\(6/1\)](#)

CJ올리브영, 美 패서디나에 1호점 오픈

- 지난달 29일 CJ올리브영은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시에 미국 첫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으며, 6월 중에는 LA에 2호점을 개점해 K-뷰티의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

※ 원문 링크 : [CJ올리브영 보도자료\(6/1\)](#)

LG엔솔, 美 DTE에너지와 16억 달러 규모 ESS 공급 계약

- 지난달 28일 LG에너지솔루션은 美 미시간주 최대 에너지 기업 DTE에너지에 총 6GWh, 16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 원문 링크 : [LG에너지솔루션 보도자료\(5/28\)](#)

현대차그룹, 美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서 하이브리드 첫 양산

- 2일 기아 미국 법인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美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생산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으며, 이는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에 이은 HMGMA의 세 번째 생산모델임

※ 원문 링크 : [HMG Metaplan America\(6/2\)](#), [HMGMA and Kia America Celebrate Production of Kia Sportage Hybrid](#)

파리바게트, 필라델피아 공항에 美 300호점 개점

- 1일 파리바게트는 美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점을 개점하여 미국 내 300호점을 돌파했으며, 2024년 말 200호점 개점 이후 1년 반 만에 100개 매장을 추가

※ 원문 링크 : [BusinessKorea\(6/1\)](#), [Paris Baguette Reaches 300 Stores in U.S.](#)

보고서 돌아보기

K-소비재 수출 확대 전략 ①: K-푸드 수출경쟁력 분석 및 시장 다변화 전략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K-푸드 수출경쟁력 분석 및 시장 다변화 전략' 주요 내용('26.5.31.) 보고서 요약. [원문보기](#)

- 2015년 이후 K-푸드 수출액은 연평균 5.8%의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7.7% 늘어난 90.8억 달러 기록
 - 2024년 기준 상위 5대 수출 대상국(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은 전체 수출의 60.6%를 차지했으며, 상위 5대 수출 품목(라면, 조제식품, 조미김, 음료, 해조류)이 전체 수출의 38.0% 차지
 - 정부는 2030년 K-푸드 수출 210억 달러를 목표로 ▲차세대 품목 발굴 ▲원스톱 수출 애로 해소 ▲K-콘텐츠와의 연계 등 K푸드의 전략 산업화를 추진 중
- 식품 수출 상위 10개국 간 수출 경쟁력 분석 결과, ①수출 포트폴리오는 중위권, ②문화 선호는 최상위권, ③산업 기반은 보통으로 평가됨

영역	활용 지표	비교 대상국
① 수출 포트폴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시장 다변화 수준 (허핀달·허쉬만 지수 활용 자체 산출) • 품목별 비교우위 수준 (대칭적 현시 비교우위 지수 활용 자체 산출) 	식품 수출 상위 10개국(2024년)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멕시코, 한국
② 문화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문화 선호도 (Youtube 영상 검색·조회데이터) • 문화 전반에 대한 선호도 (간접 지표 기반 문화 선호 지수) 	
③ 산업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역량 (노동 생산성 및 특허 출원 데이터) • 생태계 역동성 (푸드테크 스타트업 투자 유치 데이터) 	

- (①수출 포트폴리오) 수출시장·품목의 다변화 수준은 중위권이나, 최근 3년간 다변화 속도는 매우 빠른 편
- (②문화 선호) 음식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선호도에서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으며, 빅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K-푸드 관련 키워드 검색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지속성을 보였음
- (③산업 기반) 식품 제조업의 생산 역량은 10개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최상위권이나, 푸드테크 등 식품 관련 스타트업 성장 측면에서는 주요국 대비 미흡
-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우위 요인을 고려할 때, 한류 수용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진출을 고려하고 맞춤형 마케팅·현지화 전략으로 소비자 공략 필요
 - 한류 수용도, 수입시장 개방도, 인구 구조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온두라스·라트비아·케냐가 K-푸드의 진출 유망시장으로 선정

뉴스라인 스페셜

Opportunity Austin 홍보책임자 Giselle Myers Gell 인터뷰

Opportunity Austin은 오스틴을 중심으로 5개 카운티, 24개 도시를 아우르는 광역 경제개발 파트너십으로서, 경제적 번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디렉터인 지젤 마이어스 겔(Giselle Myers Gell)로부터 오스틴 지역의 경쟁력과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향후 협력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오스틴 및 텍사스 중부 지역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Giselle Myers Gell
VP of Marketing
& Communications,
Opportunity Austin

Q1. Opportunity Austin의 주요 역할과 전략은 무엇인가요?

Opportunity Austin의 모든 사업은 ①기업 유치·유지·확장(BARE), ②글로벌 투자 및 혁신, ③인력 육성, ④정책 개발이라는 4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설계된 5개년 전략 계획에 따라 추진됩니다. 이는 신규 투자 유치부터 기존 진출 기업의 지원, 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인재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진정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특히 오스틴 지역의 가파른 성장세에 발맞추어, 당사는 급변하는 신산업 트렌드와 인력 수요, 새로운 성장 기회 등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사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트렌드를 주도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Q2. 한국 기업들이 Opportunity Austin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오스틴 주변의 여러 도시들은 저마다 고유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풍부한 인력을 자랑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뛰어난 인프라나 저렴한 부지, 혹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우는 곳도 있죠. 저희 Opportunity Austin은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지역별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기업의 운영 목적과 장기 성장 전략에 꼭 맞는 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스틴 진출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자리 잡은 한국 기업들에게 저희는 생태계 전체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드립니다. 현지 인력 채용 기관, 기술 훈련 센터, 지역 대학들은 물론,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등 인프라 담당자 및 지역 리더들과의 네트워크를 주선합니다. 아울러 반도체, 자동차, 첨단 제조, 친환경 산업, 생명과학 등 오스틴이 자랑하는 거대 산업 클러스터에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녹아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도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센티브는 투자가 이뤄지는 도시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조건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로컬 지자체의 혜택부터 텍사스 주정부 차원의 대형 지원책까지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를 한눈에 파악하고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조율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오스틴만의 가장 차별화된 경쟁 우위는 무엇이며, 미국 내 다른 주요 테크 허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오스틴을 특별하게 만드나요?

삶의 질과 경제적 기회의 조화는 다른 경쟁 도시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오스틴의 특별한 강점입니다. 오스틴이 고학력 인재, 혁신적인 창업자, 글로벌 기업들을 계속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개방적이고, 기업 친화적이며, 다양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스틴은 밀켄 연구소(Milken Institute)가 선정한 '최고 성과 도시(Best-Performing Cities)'에 19년 연속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미국 노동통계국(BLS) 조사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일자리 성장률을 기록하며 미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대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Q. 미국이 관세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스틴 지역이 포착하고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속에서 오스틴이 포착한 가장 큰 기회는 수십 년간 축적된 탄탄한 산업 생태계와 독보적인 입지조건의 시너지입니다. 오스틴은 미국 최대의 대멕시코 교역 관문인 라레도(Laredo)부터 캐나다 국경까지 대륙을 종단하는 I-35 공급망 회랑(Corridor)의 심장부에 위치합니다. 이는 최근 급부상한 북미 니어쇼어링(Nearshoring) 물류 체제의 중심축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미 전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는 오스틴-버그스트롬 국제공항의 물류 인프라가 더해집니다. 투자 기업들은 이러한 오스틴의 검증된 인재 풀, 연구 기관, 로컬 네트워크를 바로 활용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 거점 구축에 따르는 리스크와 시장 진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오스틴에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한국 기업과 오스틴의 관계는 반도체 중심의 초기 협력을 넘어 첨단 제조, 바이오, 청정 에너지 등 혁신 생태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스틴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미 오스틴의 성장 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입니다. 독보적인 글로벌 물류 접근성, 풍부한 고급 인재, 기업의 성공에 헌신하는 로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저희 Opportunity Austin은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중부 텍사스가 열어가는 혁신의 여정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주요 경제지표

● 美 주요 경제지표 캘린더

발표 일자	경제지표	실제	전망	이전
5월 28일	5월 소비자신뢰지수(CB Consumer Confidence)	93.1	92.0	93.8
↳ 전월보다 0.7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작용				
5월 28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Initial Jobless Claims, WoW)	215K	211K	210K
↳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며 견고한 노동시장 유지				
6월 1일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ISM Manufacturing PMI)	54.0	53.0	52.7
↳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전쟁 장기화에 따라 기업들이 주문을 앞당긴 영향으로 분석				

출처 : Investing.com

● 주가 & 금리(미국)

- AI 투자 붐에 기반한 기술주 랠리로 S&P는 사상 처음 7600선을 돌파한 반면, 국채 금리는 둔화된 고용 지표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매수세 유입으로 하락세

구분	06.02	05.19	2W(% ,bp)	05.05	1M(% ,bp)	25.12.31	YTD(% ,bp)
S&P500	7,609.8	7,353.6	+3.48	7,259.2	+4.83	6,845.5	+11.16
국채 2년	4.05	4.12	-7.10	3.94	+11.30	3.47	+58.20
국채 10년	4.46	4.67	-21.40	4.42	+3.90	4.15	+30.20

출처 : Investing.com

● 국제유가(최종가 기준, 단위 : \$/배럴)

- 글로벌 3대 유종은 트럼프의 이란 공습 취소와 60일 휴전 MOU 잠정 합의 소식에 일제히 하락했으나, 이후 최종 서명 지연과 이란의 쿠웨이트 공습 보도가 이어지며 소폭 반등

구분	06.02	05.19	2W(%)	05.05	1M(%)	25.12.31	YTD(%)
Dubai	92.80	106.80	-13.11	106.60	-12.95	61.59	+50.67
Brent	96.00	111.28	-13.73	109.87	-12.62	60.85	+57.76
WTI	93.76	107.77	-13.00	102.27	-8.32	57.42	+63.29

출처 : 페트로넷

● 주요국 환율

- 달러화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확대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 원화는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비용 부담 우려로 환율이 재차 1,500원대를 돌파

구분	06.02	05.19	2W(%)	05.05	1M(%)	25.12.31	YTD(%)
USD/KRW	1,515.5	1,507.9	+0.50	1,469.4	+3.14	1,440.6	+5.19
USD/JPY	160.0	159.1	+0.57	157.9	+1.33	156.7	+2.11
USD/CNH	6.762	6.817	-0.80	6.828	-0.95	6.976	-3.07
EUR/USD	1.162	1.161	+0.14	1.169	-0.62	1.175	-1.06
달러인덱스	99.22	99.33	-0.11	98.44	+0.79	98.32	+0.92

출처 : Investing.com, 한국은행

행사 알리미

DISCOVER AI X LIFE SCIENCES 개최 안내

한국무역협회 델러스지부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행사인 BIO USA 2026의 공식 부대행사로 'DISCOVER AI X LIFE SCIENCES'를 개최합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 DISCOVER AI X LIFE SCIENCES
- 목 적 : AI와 연계된 생명공학 분야 주요 스타트업, 투자자를 초청하여 강연, 피칭,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라이선싱을 지원
- 일 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6:30-9:00
- 장 소 : HardRock San Diego, The Edge(2F)
- 대 상 : AI x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VC, 전략적 파트너(80명 규모, Private)
- 주요 프로그램
 - ① Welcome Dinner : 디너 오프닝 리셉션
 - ② The Pitch : AI & 바이오 딥테크 스타트업의 투자자 대상 피칭 쇼케이스
 - ③ After-Hours Mixer : 스타트업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세션
- 참가신청 : 아래 배너 클릭



본 뉴스레터의 구독 신청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구독 취소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